

신천지에 대한 이해와 논박

<각 교단별 이단 정죄>

통합 1995/80 이단 : 계시론, 신론, 기독교론, 구원론, 종말론

합동 1995/80 신학적 비판 가치 없음

2007/92 이단 : 교주신격화, 잘못된 성경 해석 등

기성 1999/54 이단 : 계시론, 신론, 기독교론, 구원론, 종말론

합신 2003/88 이단

고신 2005/55 이단 : 대표자 이만희 씨가 직통계시자, 보혜사라 주장

대신 2008/43 이단

1. 역사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가 육신을 입은 재림 예수이며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만희는 영생불사, 즉 죽지 않는 존재이며 비밀로 봉인되어 있는 말씀을 해석하여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혜사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경상도 노인입니다. 그는 1967년 서울로 상경하여 장막성전 유재열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후 그를 추종하다가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한 뒤 장막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971년 9월 7일에는 40개 항목의 혐의로 유재열과 측근 신도 김창도를 고소해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1978년부터는 장막성전의 아류인 백만봉을 추종하며 솔로몬 창조교회의 12사도 중 한 명으로 있다가 1980년 3월 14일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모아 경기도 안양에 신천지 중앙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과천으로 이전하여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풀어야 하며 신천지 신도수가 144,000명이 되면 자신들이 세상의 왕과 제사장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 주장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 주요 주장들과 그에 대한 이해

1)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며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아?”라는 질문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장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바라’라는 히브리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신천지인들은 히브리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알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한글 개역성경에만 맞추어져 있는 교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과의 토

론에서 그들이 구약에서 천사를 의미하는 '케루빔'의 영어식 발음인 '그룹'을 모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group'으로 설명했던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고 '봐라,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으니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며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도 부부로 지내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을 때 이 땅 위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택적 기록이라는 성경의 기록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 2) 그들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이 새 언약이며 그 외 신약과 구약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교주인 이만희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등과정에 들어가면 그를 재림 예수라고 신격화합니다. 또한 성경은 암호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며 봉인되어 있기에 비유를 통해서만 풀 수 있으며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으며 그 짝 구절을 통해 말씀들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해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오직 인봉된 책을 받아먹은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기록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대로 성경은 더이상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온전하고 완성된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더이상 비밀스럽게 봉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일곱 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 줄 자가 없어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것이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님께서서 모든 비밀한 것을 여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중보자나 해석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 눈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도우십니다. 또한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거나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해도 그것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이단적 신앙입니다.

3)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교주인 이만희 안에 임하여 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신천지 이만희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JMS의 정명석이나 통일교의 문선명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지상천국을 주장하며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한국 땅 과천에 지상 천국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144,000명은 이미 채워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리에, 혹은 영적으로 어느 특정한 도시나 지역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 날은 온 세상이 밝히 보고 모두 두려워 떨도록 공개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방에 숨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 하시고는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천지는 거짓 말을 하고 있습니다.

4) 신천지는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며 성경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계시의 비밀을 풀어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으며 기성교회 목사들은 모두 우상이자 거짓 선생들이라고 주장하며 오직 성경의 비밀을 배워 아는 신천지인들 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영생을 믿습니다. 교주와 12사도들, 그리고 신천지 성도들은 실제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알아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 주셨다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선언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외에 어떤 다른 행위나 조건이라도 제시하는 사람은 멸망당할 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 5) 이 외에도 신천지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잘못된 교리에만 집중하여 파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가정을 버리게 하고 파탄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은 거짓말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그것은 모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이사야 11장 2절의 모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담, 충고, 계획**’과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신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거짓말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70번도 넘게 강조합니다.

3. 나가는 말

대구 신천지의 코로나 확산 사태 이후 신천지 교세는 급속도로 약화 되었습니다(3분의 1 정도가 탈퇴한 것으로 추정). 이미 과천에 천국이 임했고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에 통달하여 구원 얻은 무리 안에 들었기 때문에 더이상 아프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으로는 수많은 신천지 신도들의 코로나 감염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천지 교육장으로 있다가 개종하여 합동교단의 목사가 된 신현욱 목사나 이만희의 내연녀로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결별하여 탈퇴한 김남희와 같은 경우를 보면 ‘바벨론 교회(그들이 기성교회를 부르는 호칭)도 아니라 이미 말씀을 깨달아 구원받은 무리 안에 들었던, 즉 완전히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질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논쟁과 설득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부정하고 거부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공훈만이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